

국경·장르 넘나드는 ‘릴레이 개인전’ 광주서 펼쳐진다

내달까지 호랑가시나무창작소 미국·대만 등 다국적 작가 참여 다채로운 표현 매체로 전시 구성 “지역과 세계가 교류하는 플랫폼”

아시아, 북미, 유럽 등 다양한 문화권과 장르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흥미로운 작품세계가 한곳에 모였다. 국적과 장르를 넘나드는 릴레이 개인전이 지난달 28일 시작해 다음달 21일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호랑가시나무창작소에서 열린다.

이번 릴레이 개인전에는 중국에서 활동 중인 위안 린(Yuan Lin)을 시작으로 스웨덴·독일 국적의 크리스토프 무게(Christoph Mugge), 미국 뉴욕에서 활동 중인 시오반 맥브라이드(Siobhan McBride), 대만에서 온 파오 렌 쿵(Pao Leng Kung),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기반의 루스 마분(Ruth Marbun)이 참여한다. 전시 현장은 영상, 설치, 드로잉 작업 등 다채로운 장르를 기반으로 한 공간으로 잇따라 탈바꿈해 관람객들의 눈을

떨 수 없게 만든다.

앞서 지난 8일부터 열린 크리스토프 무게 작가의 ‘If the Spirits Come’(만약 영혼들이 온다면)은 허구의 영적 조직 ‘영혼수호대’의 국가 재난 방송을 상상한 영상 설치 작품으로, 사머니즘과 시민 방위를 결합한 위기 생존의 대안적 프로토킴을 제시했다. 믿음과 제의, 생존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담은 이 작업은 현대 사회의 혼란과 균열 속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새로운 상상력의 공간을 제안한다.

오는 22일부터는 시오반 맥브라이드 작가의 ‘Homebody’(홈바디)가 열린다. 뉴욕 자택과 그 주변의 풍경을 섬세한 시선으로 담아낸 이 전시는 서울에서 태어나 미국 이탈리아계 가정에 입양된 개인의 서사를 통해 ‘집’이라는 장소가 내포한 기억과 정체성의 복합성을 탐구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같은 호랑가시창작소 상반기 입주작가인 서영기와의 협업 드로잉과 사운드 아티스트 케일럽 해먼드(Caleb Hammond)의 공간음향 작업이 더해져 도심과 고향, 현실과 내면이 교차



시오반 맥브라이드 작가와 서영기 작가가 광주광역시 남구 호랑가시나무창작소에서 협업 드로잉을 하고 있다. 호랑가시나무창작소 제공

하는 감성적 회고를 구성할 전망이다.

다음달 3일부터 만날 수 있는 파오 렌 쿵 작가의 ‘The space itself and the

materiality’(공간 자체와 물질성) 전시는 글라스폴리곤 갤러리 공간과 물질성을 어떤 추상으로 표현하며 어떻게 채워 갈

지가 관람 포인트다.

릴레이 개인전의 마지막은 루스 마분 작가의 ‘The black ink is coming’(검은 잉크가 온다)이 장식한다. 마분 작가는 순수 회화가 아닌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으며 주로 일러스트 작업을 통해 여성성, 공동체, 감정의 기록을 섬세하게 풀어내 왔다. 그는 반복되는 손작업과 직관적인 감각을 통해 불완전함을 표현하는 화면을 구성하며, 광주에서의 체류를 바탕으로 지역성과 개인의 기억을 인도네시아 신화에 교차하는 작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호랑가시나무창작소관계자는 “이번 전시에서는 국적, 언어, 표현 매체가 다른 작가들이 모여 광주라는 공간 안에서 교류와 창작을 이어온 흔적이 담긴 결과물이 소개된다”며 “예술을 통해 지역과 세계가 대화하는 살아 있는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시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 및 일정은 호랑가시나무창작소(062-682-0976)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광주미술해외갤러리 초청전’ 개막

광주문화재단 ‘아트광주 25’ 연계 스페인·미국·독일·몽골 갤러리서

광주 지역 작가들의 예술성과 창작 역량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2025 광주미술 해외갤러리 초청전’이 15일 스페인 상티에 아트갤러리에서 막을 올린다.

이번 전시는 ‘아트광주 24’에 참여했던 해외갤러리들의 초청으로 성사된 국제 교류 프로젝트로, ‘지평을 넘어(Beyond The Horizon)’라는 주제로 광주 미술의 세계적 확산을 목표로 한다.

이번 초청전은 (사)한국미술협회 광주 시지회가 주최하고 광주광역시가 후원하며, 광주문화재단이 협력해 추진됐다. 참여 갤러리는 △스페인 ‘상티에 아트갤러리’ △미국 ‘패리스 코 파인아트’ △독일 ‘쿤스트 40’ △몽골 ‘몽골 아트갤러리’ 등 각국을 대표하는 4개 갤러리다.

전시에는 광주 작가 20인이 참여하며, 갤러리별로 5인씩 작품을 선보인다.

첫 전시는 15일부터 23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상티에 아트갤러리’에서 열린다. 두 번째 전시는 2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미국 뉴욕의 ‘패리스 코 파인아트 갤러리’에서 진행된다. 이어 세 번째 전시는 다음달 8~14일 독일 베를린의 ‘쿤스트 40’에서 열린다. 마지막 전시는 다음달 25일부터 30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의 ‘몽골 아트갤러리’에서 개최된다.

광주미술해외갤러리 초청전은 광주 기반 작가들의 대표적인 국제 교류 프로젝트이자 지역 미술계의 세계 진출을 위한 소중한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노회용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는 “아트광주를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위상을 높이고, 지속적인 국제 미술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번 초청전을 계기로 역량 있는 해외 갤러리들이 더욱 활발히 광주를 찾고, 지역 작가들의 활동 무대가 세계로 확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찬 기자

광주문화재단, ‘글빛마루정원’ 시민에 무료 개방

빛고을아트스페이스에 조성 소모임·동아리 위해 대관 운영

시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 ‘글빛마루정원’이 지역민에게 무료 개방된다.

14일 광주문화재단에 따르면 ‘글빛마루정원’은 인문도시 광주, 책 읽는 도시 광주의 일환으로 지난달 새로 조성된 공간이다. 광주광역시 남구 빛고을아트스페이스 2층에 위치한 이 공간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지역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 공간은 소규모 세미나, 독서모임, 인문학 강좌 등 비영리 문화 활동을 위한 공유공간으로 활용된다. 6인실과 14인실 총 2개의 세미나실을 갖추고 있으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인문·독서·문화 예술 관련 소모임 및 단체라



광주광역시 남구 빛고을아트스페이스에 자리한 ‘글빛마루정원’. 광주문화재단 제공

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공간 사용 목적에 따라서는 8인용 회의 테이블, 라운드 테이블이 위치한 로비 공간과 전체 공간 대관도 승인하고 있다.

광주문화재단관계자는 “조용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문화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상업적 목적이 아닌 순수한

학습과 독서, 인문 교류 중심의 모임에만 대관을 승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광주문화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stone@gjcf.or.kr)로 접수하면 된다. 활동의 공익성과 공간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 후 이용 가능 여부가 안내된다.

박찬 기자

사운드 아트 선구자 ‘료지 이케다’의 작품, 의류상품 출시

산산기어와 협업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이 사운드 아트 거장 료지 이케다의 전시를 기념해 의류 브랜드 산산기어와 협업한 문화상품(사진)을 출시했다.

전당 개관 10주년을 맞아 마련된 특별전 ‘료지 이케다’는 전자음악과 데이터 기반의 실험적 작업을 선보이는 자리다. 이번 전시는 2015년 개관 당시 전당에서 첫 전시를 연 이케다가 10년 만에 다시 광주를 찾으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ACC재단은 이 전시의 대표작 ‘데이터 그램(data.gram)’ 시리즈에서 영감을 받아 산산기어와 함께 티셔츠와 모자 등 협업 상품을 개발했다.

산산기어는 아식스, 푸마, 삼성라이온즈 등과의 협업으로 주목받은 브랜드로, 현재 전 세계 12개국 편집숍에 입점해 있다.



특히 협업 상품은 ‘data gram 01 ? hadron collisions’의 입체적 데이터 이미지를 평면 매체인 의류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티셔츠에는 실크스크린 기법을 적용하고, 모자에는 자수 직조 상표를 더해 미디어 아트의 감각을 입혔다.

해당 협업 상품은 전당 문화상품점 ‘들락(DLAC)’과 공식 누리집(https://accdlacshop.co.kr), 산산기어 누리집(https://sansangear.com), 합정 오픈라인 매장, 더 현대 서울 등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김성수 기자

경기시나리오케스트라, 진도서 감동 국악 무대 선보인다

19일 국립남도국악원 대극장 토요상설공연 ‘국악이 좋다’

경기도를 대표하는 국악단체가 전라남도 진도를 찾아 전통음악의 감동을 선사한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19일 오후 3시 대극장 전악당에서 경기시나리오케스트라 초청공연 ‘그라데이션-G’를 선보인다.

경기시나리오케스트라는 1996년 창단돼 경기도의 흐르는 소리 자원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예술단체이다. ‘미래에 남을 오늘의 음악’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 대중과의 호흡 등을 위한 디자인으로 한국 전통음악의 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가고 있다.

이번 공연은 연희, 민요, 산조 등의 다채로운 구성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물들일 수 있게 꾸며진다. 타악기를 위한 협주곡 중 3악장 ‘하늘의 울림’을 시작으로 이태백류 아쟁산조 협주곡, 국악관현악 ‘새놀음’, 민요 ‘노랫가

락, 청준가, 태평가, 뱃노래, 잦은 뱃노래’를 선보이고, 진도 명인 고(故) 박병천의 아들이자 전 부산대학교 교수였던 박환영의 박종기제 대금연조 협주곡 ‘시공(時空)’과 마지막으로 국악관현악 ‘고래의 꿈’을 무대에 올린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https://jindo.gugak.go.kr) 또는 장악과(061-540-4042)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 기자

